

# 신디 셔먼 패션 사진의 수사학적 기법 연구

양숙희 · 운영\*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사진이란 매체가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제 하에, 사진 안에 나타난 시각적 기호들이 과연 어떠한 설득적 기제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인 설득의 문법'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어학적 수사학 개념인 의미론/구문론/화행론이라는 분석의 범주를 받아들이고, 이를 시각적인 메시지분석에 적용하였다.

수사학이란 논리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오류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설득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학문영역이다. 특히 사진과 같은 시각 기호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있어서의 수사학 연구는 작가가 사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와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밝혀내고 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화장, 가발, 의상 등의 다양한 활용 속에서 여성,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이를 사진작품으로 촬영한 신디 셔먼은 현대 여성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 중 한명이다. 셔먼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재현 체계 속에서 왜곡되어 온 여성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셔먼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두차례에 걸쳐 패션 사진 촬영

을 하였는데, 그녀는 여기에서 기존의 패션 사진들과는 다른 기괴하고 아름답지 못한, 고통과 불안이 지배하는 여성 모델을 통해 패션 사진을 창조해내었다. 이것은 그녀의 페미니즘적 사고와 오늘날의 여성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진이란 매체를 전형적인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학이 주로 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학 연구의 지평을 시각적 설득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 중심의 수사학 이론의 성과를 신디 셔먼의 패션 사진에 원용하여 이미지를 통한 표현방법의 전형적인 프레임을 밝혀냄과 아울러,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여성성에 관하여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디 셔먼의 패션 사진에 내재된 규칙과 활용을 수사학 이론과 분석틀에 입각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언어연구가 의미론(semantics), 구문론(syntax), 화행론(pragmatics)등과 같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에 등장하는 시각적 메시지 역시 의미론의 차원에서 의미작용을 분석하고, 구문론의 입장에서 이미지의 구성과 내적 논리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리고 사진의 이미지가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 또한 화행론을 도입하여 시각적 메시지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